

# 열대풍토병에 관하여

제 3 회

## (열대지방 여행시 조심해야할 질병)

○ 중요한 질병의 원인이 되는 조충은 몇종류가 있으며, 모두 장내에 기생하며 띠모양의 기생충으로서 긴것은 10미터나 되는 것도 있다.

○ 증세는 보통 소화기장해(설사, 복부둔통, 식욕부진, 구토), 빈혈, 쇠약 등이다.

○ 조충은 육류(소, 돼지고기)나 연어, 송어(담수어)를 생식함으로 감염된다. 즉, 광절열두조충은 연어나 송어 등의 담수어로, 무구조충은 쇠고기로, 유구조충은 돼지고기를 통해서 옮겨진다.

○ 특히 유구조충의 낭미충증은 피하조직, 근육, 뇌, 심장, 간장에 침입하여 간질증상을 일으키며 더 나아가서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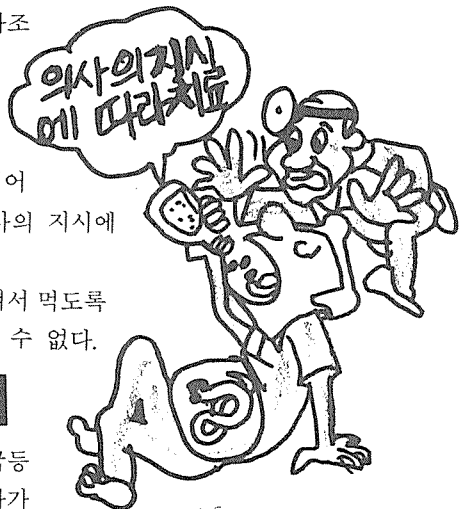
○ 치료제로 프라지퀀텔제제가 개발되어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으나 꼭 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를 받아야 한다.

○ 예방은 육류생식을 금하고 꼭 익혀서 먹도록 해야한다. 소금에 절였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.

부화하여 유충이 외계로 나와 달팽이, 우렁이, 새우, 등에 먹히면 감염형유충으로 발육하며 사람이 그 같은 생물을 생식하면 감염된다.

증세는 미열, 두통, 신경통, 안면신경마비증상을 일으킨다.

치료제는 티아벤다졸이 유효하며 예방으로써는 중간숙주가 될만한 달팽이, 새우등의 생식을 금하여야 한다.



### 광동주혈 선충증

타히티, 로알티군도, 하와이군도, 태국등에 분포되어 있다. 쥐의 폐에서 난자가

## 생식은 금물



하고 위생상태가 좋지않은 지방에서 감염위험이 크다.

○특히 열대지방의 농촌에서는 이들 기생충병에 걸릴 위험이 크다.

각각 기생충에 대한 적절한 구충약을 복용하면 된다.

○생야채를 먹을 경우는 충분한 세척을 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.

### 포충병

○세계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나 특히 칠레, 호주, 뉴질랜드, 사우디아라비아, 이라크에서 많은 감염을 나타내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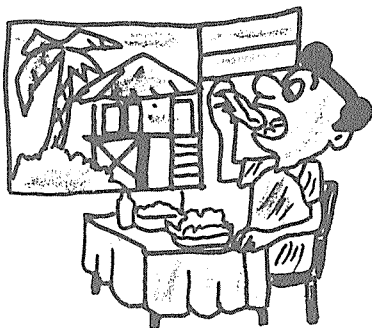
○위립조충은 개, 늑대의 소장에 기생하며 여기서 배출된 난자가 인체에 유입되면 간, 폐등 장기에 이르러 포충이 된다. 발육은 완만하지만 해가 지날수록 커져서 어린이 머리카기에 이르기도 한다.

○증세는 기능장애 객혈 및 호흡곤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.

○치료는 외과적으로 떼어내어야 되며 개의 꼬리털에 묻은 난자가 손에 옮겨져 감염될수 있으므로 특히 개인 위생에 주의 해야 한다.

### 일반장내기생충병

○회충, 구충(십이지장충), 편충, 분선충의 장내기생충은 분노 처리가 불완전



### 말라리아

○전 열대지역 및 아열대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모기에 물리면 걸리는 질병이다.

○온대지방에서는 환자수는 줄어 들었지만 범세계적으로 볼때 열대지방에서는 아직도 연간 수백만 이상의 사람이 이환되고 있다.

○말라리아는 4 종류가 있다. 삼일열, 난형열은 매 48시간, 사일열은 매72시간, 열대열은 매36-48시간에 고열 발작을 되풀이 한다.

이들의 발열간격은 사람 또는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를수도 있다. (계속)